

16개월만에 머리 맞대는 文-여야대표

일본 보복성 수출 규제 관련 초당적 합의문 채택 여부 '주목'

文 대통령, 정치권 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추경 처리 등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마침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으로 최종 제시한 날로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의를 일궈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 만남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여야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지만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3월 대북특사 단 성고 공유를 위해 성사된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촉발된 회동인 만큼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황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재 부품과 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 이상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정치권에게도 단합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앞서 공식 회의에서 제안한 온·대일특사 파견과 민간 협의체, 국회 방미단 등을 포함한 장단기 해법 등도 두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간 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동 하루 전날인 17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밝힌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일 특사 파견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순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정쟁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일 적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한 대응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회동 의제를 한정하지 않아 다른 국내의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남북미 판문점 회동 결과 공유도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북한 목선 남하 사태, 제2환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조작사태 의혹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포함한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만찬 대신 티타임으로 2시간 남짓 회동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실상 주요 의제는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스**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가 결국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평화당 당권파, 반당권파 향해 공개 성토...박지원에 "분열 선동"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 세력만 최고위원회의 참석

민주평화당 내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강파가 유성열 원내대표와 박지원·천정배 의원 중심의 제3지대파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전날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심야의원총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되자 제3지대파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라는 조직을 따로 결성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 원로 정치인'을 거론하며 당내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평화당은 17일 오전 정동영 대표와 자강파만 참여한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정동영 대표는 "어제 시내 모처에서 의원들과 진지한 소통의 자리가 있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했다. 모두 일리 있고 이해되는 이야기들이었다. 잘 받아들여서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뗀 뒤 당내 특정인이 당의 분열을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 원로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뒤에서 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당의 분열을 주도하고, 그리고 결사체를 주도하고, 도대체 그분이 원하는 당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놓아라, 당 대표직을 내놓아라.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원로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한 원로정치인의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주시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제3지대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사실 제3지대 구축이라는 것은 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더 얻자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당원 그 누구도 부정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영삼 최고위원은 "특정 개인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특정 중진 의원을 배후로 하는 공천놀음 연대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다"며 "이제 부질없는 기득권 유지 연대 놀음의 고리를 끊고 10만 당원과 함께 호흡하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데 열매 함께 해 달라. 또 현재 당무를 방치하고 있는 최고위원들도 조속히 당무에 복귀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허영 최고위원은 "어제의 의총은 요스행위였다.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말쑥한 지도부 사퇴라고 요구한 소라로 할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권이었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구태 우두머리에 이끌린 패거리 배신정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을 만들더라도 탈당하고 나가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도의를 지키라"고 전했다.

정 대표가 특정한 원로정치인은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평화당 창당 초기부터 중진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을 1선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 결성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가 유성열·최경환·장정숙 의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박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현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제3지대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사실 제3지대 구축이라는 것은 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더 얻자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당원 그 누구도 부정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영삼 최고위원은 "특정 개인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특정 중진 의원을 배후로 하는 공천놀음 연대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다"며 "이제 부질없는 기득권 유지 연대 놀음의 고리를 끊고 10만 당원과 함께 호흡하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데 열매 함께 해 달라. 또 현재 당무를 방치하고 있는 최고위원들도 조속히 당무에 복귀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허영 최고위원은 "어제의 의총은 요스행위였다.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말쑥한 지도부 사퇴라고 요구한 소라로 할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권이었고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구태 우두머리에 이끌린 패거리 배신정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을 만들더라도 탈당하고 나가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도의를 지키라"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의장, 5당 대표에 "문 대통령 회동,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시라"

黃 "대통령에 제안했는데 이해찬이 응답하더라"

나경원 "우리 모두 이인영만 쳐다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야 5당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시라. 특정 의제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정연결실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사전환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소식에 "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일 문제를 중심으로 원하시는 것들로 다루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소나기처럼 확 소통의 불교가 트였으면 좋겠다"면서 "의회에서 힘만 합치면 국민과 대통령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 대표께서 응답하셨다. 쿠션이 돌아온 모양"

이라며 빼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 의장은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향해 "이 세 분이 잘하셔야 나머지 다 풀어진다"면서 "원내대표 세 분이 잘해 달라. 이번 71주년 제헌절에 그걸 선봉로 좀 썼으면 한다"고 국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저희 모두가 원내대표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의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모든 분이 (저만) 쳐다보지 않느냐"고만 했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부의장은 "줄 거리는 여당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야당에도 하나씩 던져주면서 나눠주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뭘 줘야 우리가 줄 수 있다"면서 "아무 내용 없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